

누가복음 18:22의 πάντα ὅσα ἔχεις πώλησον 번역에 대한 제안

이두희*

1. 들어가는 말

한 언어로 기록된 문서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은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원문의 단어가 가진 의미에 정확히 대응되는 번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번역본들을 살펴보면, 동일한 원문에 대해 다양한 번역어들이 번역자의 해석과 결정에 따라 채택되는 것을 보게 된다. 비단 단어의 의미 문제뿐만 아니라, 번역 대상이 되는 문장 전체의 의미가 단순한 자구적 직역을 통해서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어떤 번역자는 문자적 번역을 벗어나서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둔 번역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원문과 번역어가 지닌 독특한 언어적 특성으로 인해, 번역 과정에서 어순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되기도 한다.¹⁾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련하여 어떤 원칙에 따라 번역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대로부터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크게 보아 두 가지 번역 원칙이 상호 경쟁해 온 것처럼 보인다. 상호 경쟁적인 두 가지 번역 원칙은, 제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의미 대 의미(sense for sense)’ 방법과 ‘단어 대 단어(word for word)’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²⁾ 번역 원칙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던 대부분의 다른 이들도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이원론적 구조의 틀 속에서 사고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보자면, 쉴라이에르마허는 ‘낯설게 하기(foreignization)’와 ‘토착화하기(domestication)’, 나이다는 ‘형식(form) 대 내용(content)’, 라르손은

* 장로회신학대학교 강사, 신약학.

1) 이두희, “<서평> A History of Bible Translation”, 『성경원문연구』 26 (2010), 158.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할 때는 원하기만 하면 어순까지도 철저히 보존할 수 있었는데, 제롬 같은 번역자는 어순도 영감된 것으로 보아 이를 철저히 유지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2) Ibid.

‘의미에 기초한(meaning-based) 방법’과 ‘형식에 기초한(form-based) 방법’으로 번역의 원칙을 이분화하고 있다.³⁾

지금까지의 번역 작업을 보면, 이 두 가지 번역 원칙 중 어느 하나만을 고집스럽게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어느 하나를 주된 원칙으로 삼되 경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두 원칙 사이를 오가면서 번역을 하고 있는 듯하다. 필자는 이 글에서 누가복음 18:22의 번역과 관련하여, 현재의 한글 성경이 이 본문을 어떤 번역 원칙에 따라 번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에 그 원칙을 따른 번역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를 검토한 후에, 필자가 생각하기에 보다 나은 번역이라고 생각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누가복음 18:22에 대한 다양한 한글 번역들

먼저 우리가 검토하고자 하는 구절의 번역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헬라어 원문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NTG 27판에 따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누가복음 18:22는 다음과 같다.

ἀκούσας δὲ ὁ Ἰησοῦς εἶπεν αὐτῷ· ἔτι ἐν σοὶ λείπει· πάντα ὅσα ἔχεις πώλησον καὶ διάδος πτωχοῖς, καὶ ἔξεις θησαυρὸν ἐν [τοις] οὐρανοῖς, καὶ δεῦρο ἀκολούθει μοι.

그 중에서 필자는 특별히 “πάντα ὅσα ἔχεις πώλησον” 구절에 대한 번역의 적절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한글 번역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논의의 대상 부분에 주의하면서, 누가복음 18:22에 대한 한글 번역본들의 번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역개정』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πάντα ὅσα ἔχεις πώλησον) 가난한 자들에

3) 이 외에도 때때로 성경의 번역자들 중에는 자신의 신학에 따라 원문의 내용을 자유롭게 해석하여 옮긴 경우도 있다. 의미 전달의 수준을 넘어 의미 생산 작업까지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김선중은 타르굼의 번역자가 호세아 1장을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번역하면서, 자신의 신학을 반영하여 원문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원문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원문에 없는 내용을 첨가하거나, 심지어 원문에 있는 내용과 정반대 되는 역번역(converse translation)을 한 경우도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참조, 김선중, “타르굼 호세아 1장의 번역 기법”, 『성경원문연구』 26 (2010), 53-70.

게 나눠 주라(διάδος)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표준새번역』, 『새번역신약』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공동번역』, 『공동개정』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너에게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하셨다.

위 인용문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글 번역본들은 문제 구절에 대해 두 가지 방식으로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역개정』과 『공동번역』, 『공동개정』은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로 번역하고 있고, 『표준』과 『새번역신약』은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고 번역하고 있다. ‘문자 대 문자’ 번역 원칙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표준』과 『새번역신약』의 번역이 더 좋은 번역으로 보일 것이다. 이 두 번역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라고 함으로써, 2인칭 단수 현재형 동사인 ἔχεις의 인칭과 ‘가지다’라는 의미를 문자적으로 잘 옮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의미 대 의미’ 번역 원칙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 볼 때에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로 번역하여 약간의 의역을 취하고 있는 『개역개정』이나 『공동번역』의 번역도 무난한 번역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어느 쪽 번역을 채택하든지 간에, 한글을 이해하는 이들은 두 가지 상이한 번역에서 동일한 의미를 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도 “(네게) 있는 것” 혹은 “네가 가진 것”으로 번역되고 있는 ἔχεις의 경우 문자적 번역을 취하든, 의미 위주의 번역을 취하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 본 다섯 가지 한글 번역본들이 모두 동일하게 “다 팔아”로 번역하고 있는 πάντα ὅσα ἔχεις πώλησον 구절에 대해서는 더 고려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미 대 의미’ 번역 원칙을 따르는 번역자들에게 이 번역은 전혀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헬라어의 사전적 의미로 볼 때에도 이 번역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문자 대 문자’ 번역 원칙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조금 아쉬움을 남긴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 포함된 πάντα라는 단어가 번역에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번역자가 πάντα의 문

자적 번역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πάντα를 번역에 반영하지 않은 선택이 과연 최선의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지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관계사 ὅσα의 사전적 의미와 용례

우선 논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구절에 포함된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한 번 점검해 보기로 하자. πάντα ὅσα ἔχεις πώλησον이라는 구절에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단어는 관계사 ὅσα이다. 관계사 ὅσα가 그 자체로 ‘다(all)’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아니면 ‘모든/모두(all)’의 의미를 가진 πάντα의 도움을 받아야만 ‘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전 문헌 연구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헬라어 사전으로 인정되고 있는 Liddell & Scott 등에 의해 편찬된 *A Greek-English Lexicon*과⁴⁾ 신약과 초기 기독교 문헌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헬라어 사전으로 인정되고 있는 Frederick William Danker에 의해 편찬된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에서⁵⁾ ὅσ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항목을 점검해 보기로 하자.

3.1. A Greek-English Lexicon

ὅσα는 ὅσος의 중성복수대격 관계사이므로 ὅσος, ὅση, ὅσον 항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Liddell & Scott에 의하면, ὅσα의 의미는 “of size, as great as; of quantity, as much as; of time, as long as; of number, as many as”로 설명되고 있다. 즉, 이 사전은 ὅσα가 어떤 대상이나 사건의 상대적인 양이나 수, 크기, 길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사전은 ὅσος, ὅση, ὅσον이 경우에 따라 ‘모든’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한 예로 투퀴디데스(Thucydides)의 『역사』(2.45)를 제시한다.

4) H. G. Liddell, et al., *A Greek-English Lexicon* (Oxford; New York: At the Clarendon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1261.

5) F. W. Danker, et al.,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γυναικειάς τι ἀρητῆς, ὅσαι νῦν ἐν χηρείᾳ ἔσονται, ...
of the virtue of all the women, who will henceforth be in widowhood...
(이제부터 과부가 될 모든 여자들의 덕에 관하여...)

따라서 사전적 의미로 볼 때, 관계사 ὅσα는 πάντα의 도움 없이도 그 자체로 ‘모든/다’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3.2.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이제 신약과 초기 기독교 문서들에 초점을 두고 Frederick Willian Danker에 의해 편찬된 헬라어 사전에 나타난 ὅσα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사전도 Liddell & Scott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ὅσος, ὅση, ὅσον은 관계사로서 어떤 대상이나 사건의 상대적인 양이나 수를 나타내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as many/much as). 사전은 이런 용법의 사례로 누가복음 4:40; 사도행전 3:24; 5:36과 이 글의 논의 대상구절이 포함된 누가복음 18장의 12절과 22절을 제시하고 있다.

눅 4:40

Δύνουτος δὲ τοῦ ἡλίου ἅπαντες ὅσοι εἶχον ἀσθενοῦντας νόσοις ποικίλαις ἤγαγον αὐτοὺς πρὸς αὐτόν· ὁ δὲ ἐνὶ ἐκάστῳ αὐτῶν τὰς χεῖρας ἐπιτιθεὶς ἐθεράπευεν αὐτούς.

행 3:24

καὶ πάντες δὲ οἱ προφῆται ἀπὸ Σαμουὴλ καὶ τῶν καθεξῆς ὅσοι ἐλάλησαν καὶ κατήγγειλαν τὰς ἡμέρας ταύτας.

행 5:36 이하

πρὸ γὰρ τούτων τῶν ἡμερῶν ἀνέστη Θεοδᾶς λέγων εἶναι τινα ἑαυτόν, ᾧ προσεκλίθη ἀνδρῶν ἀριθμὸς ὡς τετρακοσίων· ὃς ἀνηρέθη, καὶ πάντες ὅσοι ἐπέιθοντο αὐτῷ διελύθησαν καὶ ἐγένοντο εἰς οὐδέν.³⁷ μετὰ τοῦτον ἀνέστη Ἰούδας ὁ Γαλιλαῖος ἐν ταῖς ἡμέραις τῆς ἀπογραφῆς καὶ ἀπέστησεν λαὸν ὀπίσω αὐτοῦ· κἀκεῖνος ἀπώλετο καὶ πάντες ὅσοι ἐπέιθοντο αὐτῷ διεσκορπίσθησαν.

눅 18:12

νηστεύω δις τοῦ σαββάτου, ἀποδεκατῶ πάντα ὅσα κτῶμαι.

눅 18:22

ἀκούσας δὲ ὁ Ἰησοῦς εἶπεν αὐτῷ· ἔτι ἐν σοὶ λείπει· πάντα ὅσα ἔχεις πώλησον καὶ διαδος πτωχοῖς, καὶ ἔξεις θησαυρὸν ἐν [τοις] οὐρανοῖς, καὶ δεῦρο ἀκολούθει μοι.

그런데 이 사전도 Liddell & Scott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ὅσος, ὄση, ὄσον이 πάντες나 πάντα 없이도 단독으로 ‘모든(all that)’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리고 그 예로서 사도행전 9:39; 10:45를 예로 들고 있다.

행 9:39

ἱμάτια ὅσα ἐποίει μετ’ αὐτῶν οὐσα ἡ Δορκάς.
all the garments tha...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만들어 준 모든 겜옷들)

행 10:45

καὶ ἐξέστησαν οἱ ἐκ περιτομῆς πιστοὶ ὅσοι συνῆλθαι τῷ Πέτρῳ,
all the believers who came with Peter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신자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전적 의미 설명을 참고하면, 누가-행전의⁶⁾ 저자는 관계사 ὅσα가 πάντα 없이도 ‘다(all)’의 뜻을 가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누가-행전의 저자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πάντες나 πάντα 없이 관계사 ὅσα만을 사용해서 ‘all that (다/모든)’의 의미를 전달하는 용례를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πάντα라는 단어가 없이 ὅσα ἔχεις πώλησον이라는 구절만 가지고도 위에서 살펴본 현재의 여러 한글 번역본들이 채택한 ‘다 팔아’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행전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πάντα라는 단어를 여기에 덧붙였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번역자는 헬라어 원문에 있는 πάντα라는 단어의 존재를 살리는 다른 번역을 고려해

6) ‘누가-행전’이라는 명칭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저자에 의해 기록된 한 권의 책임을 나타내기 위해 캐드버리(Henry Joel Cadbury)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고, 그 이후 많은 현대 신약 연구자들이 이 명칭을 즐겨 사용하고 있으며, 필자도 같은 관행을 따라 이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물론, ‘누가-행전’이 같은 저자에 의해 기록된 한 권의 책임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권의 책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이 논문의 논지와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 중요한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다는 점이다. 참조, Henry Joel Cadbury, *The Making of Luke-Acts* (London: S.P.C.K., 1958), 1-11; Mikeal Carl Parsons and Richard I. Pervo, *Rethinking the Unity of Luke and Act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야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질문을 가져볼 수 있다.

4. 누가-행전의 저자가 πάντα를 덧붙이고 있는 이유

4.1. 편집 비평적 관점에서의 관찰

위에서 필자는 누가-행전의 저자가 πάντα 없이도 관계사 ὅσα만으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었음에 대한 의미론적 고찰을 사전에 의지하여 수행하였다. 그러나 과연 πάντα가 의도적으로 추가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누가-행전 저자의 문체적 경향의 반영인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πάντα가 단순한 문체적 특징이 아니라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추가된 것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의 논의를 위해 복음서에 대한 편집 비평적 연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편집비평은 누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복음을 자신의 저작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출발한다. 편집비평은, 이때 누가복음의 저자가 자신이 참고하고 있는 자료인 마가복음의 본문에 첨가, 삭제, 변경 혹은 일정한 단락의 자리바꿈 등을 통해서 자신의 독특한 신학적 강조점을 드러냈을 것으로 추정한다.⁷⁾ 이런 편집 비평적 접근을 누가복음 18:22에 적용하여, 과연 누가-행전의 저자가 πάντα를 의도적으로 덧붙인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의도로 덧붙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먼저 누가복음 18:22의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0:21의 헬라어 원문을 비교해 보자. 참고가 되도록 마태복음의 병행구절까지 포함하여 표로 나타내보면 아래와 같다.

마가복음 10:21	누가복음 18:22	(참고) 마태복음 19:21
ὁ δὲ Ἰησοῦς ἐμβλέψας αὐτῷ ἠγάπησεν αὐτὸν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ἔν σε ὑστερεῖ· ὕπαγε, ὅσα ἔχεις πώλησον καὶ δὸς [τοῖς] πτωχοῖς, καὶ ἕξεις θησαυρὸν ἐν οὐρανῷ, καὶ δεῦρο ἀκολούθει μοι.	ἀκούσας δὲ ὁ Ἰησοῦς εἶπεν αὐτῷ· ἔτι ἐν σοὶ λείπει· πάντα ὅσα ἔχεις πώλησον καὶ διάδος πτωχοῖς, καὶ ἕξεις θησαυρὸν ἐν [τοῖς] οὐρανοῖς, καὶ δεῦρο ἀκολούθει μοι.	ἔφη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εἰ θέλεις τέλειος εἶναι, ὕπαγε πώλησόν σου τὰ ὑπάρχοντα καὶ δὸς [τοῖς] πτωχοῖς, καὶ ἕξεις θησαυρὸν ἐν οὐρανοῖς, καὶ δεῦρο ἀκολούθει μοι.

7) Mark Allan Powell, 『복음서 개론』, 허주 역 (서울: 크리스찬 출판사, 2003), 22-37.

위의 비교표가 드러내주듯이, 우리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복음에 없던 πάντα라는 단어를 첨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일회적인 일이 아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다른 구절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편집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듯하다. 마가복음 1:18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고 보도되고 있다. 한편, 누가복음의 병행구절인 5:11은 미세하지만 중요한 변경을 가하고 있다.

마가복음 1:18	누가복음 5:11	(참고) 마태복음 4:20
καὶ εὐθὺς ἀφέντες τὰ δίκτυα ἠκολούθησαν αὐτῷ.	καὶ καταγαγόντες τὰ πλοῖα ἐπὶ τὴν γῆν ἀφέντες πάντα ἠκολούθησαν αὐτῷ.	οἱ δὲ εὐθέως ἀφέντες τὰ δίκτυα ἠκολούθησαν αὐτῷ.

마태는 마가복음의 본문에 눈에 띄는 변경을 가하지 않은 반면, 누가는 단순히 그물(τὰ δίκτυα)만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진 ‘모든(πάντα)’ 것을 버려두었다고 보도함으로써, 예수를 따르기 위해 포기한 재물의 범위를 가진 것 ‘전체’로 확대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4.2. 비교 연구 방법(comparative method)을 적용한 관찰

조금 다른 각도에서이긴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의 비교도 우리의 논의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상호간에 어느 한 복음서가 다른 복음서의 자료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에서 활용했던 편집 비평적 관점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편집 비평적 가정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본문들 상호간의 비교는 각각의 복음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신학적 강조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⁸⁾ 이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6:30을 마태복음 5:42와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특징을 관찰하게 된다.

8) 이런 접근법을 ‘비교 연구 방법(comparative method)’이라 한다. 참조, Bart D. Ehrman, *The New Testament: A Historical Introduction to the Early Christian Writings* (3rd e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113-131.

누가복음 6:30	마태복음 5:42
παντί αἰτοῦντί σε δίδου, καὶ ἀπὸ τοῦ αἵροντος τὰ σὰ μὴ ἀπáειαι	τῷ αἰτοῦντί σε δός, καὶ τὸν θέλοντα ἀπὸ σοῦ δανίσασθαι μὴ ἀποστραφῆς.

누가복음의 저자가 마태복음 본문에 첨가를 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누가복음 6:30은, 누가복음 18:22의 경우에서와 비슷하게, 마태복음에 없는 παντί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⁹⁾

4.3. 관찰로부터의 추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누가복음 저자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πάντα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저 무의식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독특한 신학적 입장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누가의 πάντα 사용에 영향을 준 독특한 신학적 입장은 무엇일까? 우리는 위에서 살펴본 용례들이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봄으로써 그 대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세 경우 모두 주제는 ‘소유물의 나눔과 포기’에 대한

9) 이 구절의 경우에도 한글 번역들은 누가복음 6:30을 번역할 때 παντί의 존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번역이 암묵적으로 ‘구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주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명백하게 번역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독자들이 저자가 의미한 바를 놓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6:30의 경우에도 παντί를 살려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라’로 번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누가복음 6:30의 다른 외국어 번역들과 한글 번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atin Vulgate *omni autem petenti te tribue et qui aufert quae tua sunt ne repetas.*

Segond *Donne à toute personne qui t'adresse une demande et ne réclame pas ton bien à celui qui s'en empare.*

Luther Bible *Wer dich bittet, dem gib; und wer dir das deine nimmt, da fordere es nicht wieder.*

NRS *Give to everyone who begs from you; and if anyone takes away your goods, do not ask for them again.*

CEV *Give to everyone who asks and don't ask people to return what they have taken from you.*

NIV *Give to everyone who asks you, and if anyone takes what belongs to you, do not demand it back.*

『표준』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공동번역』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빼앗는 사람에게는 되받으려고 하지 말라.

독일어 번역과 한글 번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번역들은 필자가 제안한 것처럼, παντί를 번역에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것이다.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누가복음은 일관되게 소유물의 나눔과 포기를 그 정도에 있어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¹⁰⁾

그렇다면, 한글 번역이 누가복음 저자의 중요한 신학적 강조점/관심사를 반영하는 παντί/πάντα를 번역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얼핏 보기에 ‘의미 대 의미’ 번역 원칙에 따라 적당히 생략해도 의미에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번역이 되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5. 재물의 올바른 사용과 나눔이 누가-행전 저자의 중요한 신학적 관심사였다는 본문상의 증거들

위에서 우리는 ‘소유물의 나눔과 포기’가 누가복음 저자의 중요한 신학적 관심사 중의 하나였음을 살펴보았다.¹¹⁾ 그러나 아직도 이 주제가 누가-행전 저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관심사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이들을 위해 누가-행전의 저자가 재물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보여준 입장, 즉 자신이 가진 재물을 주를 위해 기꺼이 포기하고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증거를 본문 속에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자.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복음의 내용과 병행을 이루는 마가복음의 구절, 마태복음의 구절들을 편집 비평적으로, 또 비교 방법론적으로 대조하여, 거기서 발견되는 차이점에 기초하여 누가복음 저자가 재물 사용의 문제에 대해 보여준 특정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추정해 보았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가 가진 독특한 관심을 살펴보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전하지 않지만 누가복음만이 전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는 일이다. 마태나 마가가 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굳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그 내용이 누가에게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²⁾

10) 이두희, “누가-행전에 나타난 나눔의 윤리”, 『신약논단』 18:3 (2011), 717-751.

11) John Gillman, *Possessions and the Life of Faith: A Reading of Luke-Acts* (Collegeville, Minn.: Liturgical Press, 1991), 18; Allen Verhey, 『신약성경윤리』, 김경진 역(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7), 199-205.

12) 누가복음만이 전하는 특수기사 전체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Mark Allan Powell, 『복음서 개론』, 130-131.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재물의 올바른 사용, 재물의 나눔과 포기가 누가복음 저자의 중요한 신학적 관심사 중의 하나였음을 부분적으로 고찰한 시점에서, 그것을 강화해주는 증거를 찾고 있으므로 이 주제와 관련하여 누가복음만이 전하고 있는 내용을 한 번 살펴보기로 하자.

5.1. 누가복음의 시적(poetic) 본문들

누가복음은 유난히 운문 형식으로 된 본문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다. 누가복음은 이런 운문 형식으로 된 본문들에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신학적 사상들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시적 형태를 띠고 있는 본문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누가복음 저자의 재물 사용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연후에 이러한 신학적 강조점이 서술(narrative) 형태로 보도되는 이야기들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우선 요점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당 본문들을 표의 형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눅 1: 51-53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구절은 마리아 찬가의 일부로 여기서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들이 동일시되고 있으며, 그들이 주리는 자들에 대해 나누고 돌보는 커녕 자신들의 탐욕을 좇아 행한 일들에 대한 암묵적 비난과 그 결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전(reversal)’의 모티브가 부각되고 있다.
눅 3:10-14	세례 받으러 나아온 이들을 향해 세례자 요한이 행한 답변의 일부인데, 있는 자는 소유를 나누어 가져야 하고, 군인들은 정당한 몫 이상(more than their due)을 탐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¹³⁾
눅 4:18	나사렛 회당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설교에 포함된 이사야서의 인용 부분인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눅 6:20-21	“...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¹⁴⁾
*눅 6:24-25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도다.”

13) Robert F. O’Toole, *The Unity of Luke’s Theology: An Analysis of Luke-Acts*, Good News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재물에 대한 올바른 자세,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나눔의 중요성 등을 시적 본문들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¹⁵⁾

5.2. 누가복음의 서술(narrative) 본문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처럼 시적 본문들 속에서 재물의 올바른 사용,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나누어 줌의 중요성에 대해 암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강조하였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서술 본문들을 통해 이야기 형식으로 각인시켜준다.¹⁶⁾ 이를 개략적으로 도표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눅 10: 29-37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진 본문 -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의 소유물(짐승, 두 데나리온 + 추가 비용)을 사용한 사례
눅 12:16-21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알려진 본문 - 풍년이 들었을 때, 잉여 소출을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창고를 지어 저장해 두고 먹고 즐기겠다고 생각했던 한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이 비축한 재물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그날 밤에 죽게 된 이야기
눅 16:19-31	‘부자와 나사로 비유’로 알려진 본문 - 자신의 집 문에서 구걸하며 비참한 삶을 살던 나사로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된 이야기 ¹⁷⁾
눅 18:18-30	‘부자 관리 이야기’로 알려진 본문 - 재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지 못한 한 부자 관리의 이야기
눅 19:1-10	‘삭개오 이야기’로 알려진 본문 -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된 삭

Studies (Wilmington, Del.: M. Glazier, 1984), 131.

14) 마태복음에는 유사한 구절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마태복음 5:3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하고 있는 반면, 누가복음 6:20은 단순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함으로써, 여기서 가난은 물질적 궁핍을 뜻하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참조, Luke Timothy Johnson, *The Gospel of Luke*, Sacra Pagina Series 3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91), 106.

15) 필자의 졸고를 참조하라. 이두희, “누가-행전에 나타난 나눔의 윤리”, 717-751.

16) 서술 본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재물을 긍정적으로 사용한 누가복음에만 보도되는 사례에 대한 인상적인 언급이 8:2-3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예수님과 열 두 제자) 섬기더라”

개오가 자신의 재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야기
--

5.3. 사도행전에 나오는 재물(사용) 관련 본문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동일한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은 없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 반영된 저자의 재물 사용에 관한 관심이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지속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사도행전에서 저자가 재물 사용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가벤타(Beverly Gaventa)가 관찰한 내용은 언급될 만하다. 가벤타는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유일하게 보도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35임을 관찰하였는데, 흥미롭게도 이 구절의 내용은 재물의 사용과 관련된 것이었다.¹⁸⁾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행 20:35)

가벤타가 관찰한 것처럼, 승천 장면을 제외하고 사도행전 전체에서 유일하게 보도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재물의 사용’과 관련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재물의 사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 대한 반증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는 재물 사용과 관련된 본문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재물 사용의 긍정적 사례를 보여주는 경우들이고, 다른 하나는 재물 사용의 부정적 사례를 보여주는 경우들이다.¹⁹⁾

5.3.1. 재물을 긍정적으로 사용한 경우들

17) Fred B. Craddock, *Luke*,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162-164.

18) Beverly Robert Gaventa, *The Acts of the Apostles*, Abingdon New Testament Commentarie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3), 290.

19) 김득중, 『누가의 신학』 (서울: 컨콜디아사, 1991), 124; Walter E. Pilgrim, *Good News to the Poor: Wealth and Poverty in Luke-Acts*, Good News Studies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1), 152-153; 박수암, 『사도행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09-110.

행 2:41-47; 4:32-35 ²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고,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쓴 일이 요약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행 4:37	사도행전 4:32-35의 요약적 보도에 연하여, 사도행전 4:37은 그와 같이 재물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고 함께 공유한 구체적인 인물로서 마나바를 제시하고 있다.
행 9:36-37	사도행전 9:36-37은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에 대한 보도이다. 도르가가 평소에 속옷과 겹옷을 지어 봉양했던 모든 과부들이 도르가를 위해 애곡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다.
행 10:2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행전 10:2에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그의 ‘구제와 기도’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행 11:28-30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가 흉년으로 꺾일한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낸 일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행 19:19	사도행전 19:19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된 에베소인들 중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마술 책들을 모아 불살랐는데, 그 값이 은 오만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보도이다. 믿음을 위해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한 사례를 전하고 있는 경우이다.

5.3.2. 재물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재물을 욕심 낸 경우들

행 1:18	예수님을 배반한 대가로 받은 불의의 값으로 밭을 사고, 후에 그것에 대한 신적인 징벌을 받아 ²¹⁾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비참한 죽음을 맞은 가롯 유다에 대한 보도.
행 5:1-11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고 각자의 필요를 따라 함께 나누어 쓰던 예루살렘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 ²²⁾ 판 값의 일부를 감추어 두고 일부만 가져다 바치고도 그것이 전부인 양 속였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아나니아-사비라 부부의 이야기.
행 8:18-24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으로 그런 능력을 사고자 했다가 큰 재앙을 당할 뻔했던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

20) Luke Timothy Johnson, *The Literary Function of Possessions in Luke-Acts* (Missoula: Scholars Press for th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1977), 5-6.

21) O. Wesley Allen, *The Death of the Herod: The Narrative and Theological Function of Retribution in Luke-Acts* (Atlanta: Scholars Press, 1977), 120-124.

22) F. Scott Spencer, *Act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56-57; Robert F. O’Toole, “You did not lie to Us (Human beings) but to God (Acts 5:4c)”, *Biblica* (1995), 204-206, 209.

행 16:19-24	빌립보에서 바울이 접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을 때,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가” 결국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도록 한 이야기. 접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귀신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여종의 비참한 처지에는 아랑곳 않고, 그 여종을 통해 누리던 재정적 수입의 상실에만 관심하고 있는 모습이 암묵적으로 지적.
행 19:23-24	에베소의 은장색 데메드리오는 바울의 복음 전함을 통해 아데미 여신 숭배가 약화되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아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수입이 끊기게 될 것에 분개하여 소동을 일으킨 이야기.
행 24:24-27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옥에 갇히게 된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기를 기대하며 바울을 자주 찾아가 만났던 벨릭스 총독의 이야기.

5.4. 소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행전의 저자가 재물의 올바른 사용,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과 재물에 대한 욕심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 소유물을 필요한 이웃과 나눔 등의 주제를 매우 중요한 신학적 강조점으로 염두에 두면서 누가-행전을 집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몇 가지 점에서 살펴보았다. 다른 복음서들이 전하지 않지만 누가복음만이 보도하고 있는 특수 본문들 중에 유난히 재물의 올바른 사용,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역시 재물의 올바른 사용,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 저자가 18:22에서 πάντα를, 그리고 6:30에서 παντί를 사용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신학적인 도를 반영하는 의도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6. 누가복음 18:22의 번역에 대한 새로운 제안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누가복음 18:22의 한글 번역이 누가의 중요한 신학적 강조점을 담지하고 있는 단어 πάντα를 번역에서 문자적으로 살려주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이 문제의 구절

을 어떻게 번역하면 누가의 의도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단계에 이르렀다. 필자의 제안을 밝히기에 앞서, 현재의 여러 다른 번역들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번역의 방향성에 대한 도움을 찾아보는 것은 유익한 일이라 생각된다. 기왕에 이 구절을 새롭게 번역한다면, 마가복음과의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므로, 누가복음 18:22와 그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21을 대조해서 기존의 번역들을 먼저 검토해 보기로 하자.

6.1. 불가타, 독일어, 불어 번역들

구분	누가복음 18:22	마가복음 10:21
Latin Vulgate	Quo audito Iesus ait ei adhuc unum tibi deest. <u>Omina quaecumque habes vende et da pauperibus</u> et habebis thesaurum in caelo et veni sequere me.	Iesus autem intuitus eum dilexit eum et dixit illi: unum tibi deest, vade <u>quaecumque habes vende et da pauperibus</u> et habebis thesaurum in caelo et veni sequere me.
NEG, LSG	Jésus, ayant entendu cela, lui dit: Il te manque encore une chose: <u>vends tout ce que tu as, distribue-le aux pauvres,</u> et tu auras un trésor dans les cieux. Puis, viens, et suis-moi.	Jésus, l'ayant regardé, l'aima, et lui dit: Il te manque une chose; va, <u>vends tout ce que tu as, donne-le aux pauvres,</u> et tu auras un trésor dans le ciel. Puis viens, et suis-moi.
Luther Bibel 1545	Da Jesus das hörte, sprach er zu ihm: Es fehlt dir noch eins. <u>Verkaufe alles, was du hast, und gib's den Armen,</u> so wirst du einen Schatz im Himmel haben; und komm, folge mir nach!	Und Jesus sah ihn an und liebte ihn und sprach zu ihm: Eines fehlt dir. Gehe hin, <u>verkaufe alles, was du hast, und gib's den Armen,</u> so wirst du einen Schatz im Himmel haben, und komm, folge mir nach und nimm das Kreuz auf dich.
Schlachter 2000	Als Jesus dies hörte, sprach er zu ihm: Eins fehlt dir noch: <u>Verkaufe alles, was du hast, und verteile es an die Armen,</u> so wirst du einen Schatz im Himmel haben, und komm, folge mir nach!	Da blickte ihn Jesus an und gewann ihn lieb und sprach zu ihm: Eines fehlt dir! Geh hin, <u>verkaufe alles, was du hast, und gib es den Armen,</u> so wirst du einen Schatz im Himmel haben; und komm, nimm das Kreuz auf dich und folge mir nach!

위에서 제시한 외국어 번역들의 대조표를 참고해 보면, 번역에 있어서 문제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에 덧붙인 πάντα를 번역에서 제대로 살려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가복음의 δός와 달리 διάδος를 사용해 접두어 dia-를 덧붙인 누가복음 본문의 뉘앙스를 번역에서 잘 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Latin Vulgate의 누가복음 번역은 πάντα에 해당하는 omnia를 살려서 번역한 부분은 좋았지만, διάδος를 da라고만 번역하여 마가복음과의 차별화를 보여주지 못한 점이 아쉽다. 불어 번역들은 διάδος를 distribue라고 번역하여 마가복음의 δός와 뉘앙스 차이를 잘 전하고 있지만, πάντα의 존재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독일어 번역의 경우, Luther Bibel은 마가복음과 완전히 똑같이 번역하여 πάντα의 존재도, διάδος와 δός의 차이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Schlachter 번역은 πάντα의 존재를 살리지는 못했지만, διάδος와 δός의 차이는 잘 드러내주고 있다.

6.2. 영어 번역들

구분	누가복음 18:22	마가복음 10:21
ASV	And when Jesus heard it, he said unto him, One thing thou lackest yet: <u>sell all that thou hast, and distribute unto the poor,</u> and thou shalt have treasure in heaven: and come, follow me.	And Jesus looking upon him loved him, and said unto him, One thing thou lackest: <u>go, sell whatsoever thou hast, and give to the poor,</u> and thou shalt have treasure in heaven: and come, follow me.
NIV	When Jesus heard this, he said to him, “You still lack one thing. <u>Sell everything you have and give to the poor,</u>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Then come, follow me.”	Jesus looked at him and loved him. “One thing you lack”, he said. “Go, <u>sell everything you have and give to the poor,</u>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Then come, follow me.”
NRS	When Jesus heard this, he said to him, “There is still one thing lacking. <u>Sell all that you own and distribute the money to the poor,</u>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then come, follow me.”	Jesus, looking at him, loved him and said, “You lack one thing; <u>go, sell what you own, and give them only to the poor,</u>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the come, follow me.”
CEV	When Jesus heard this, he said, “There is one thing you still need	Jesus looked closely at the man. He liked him and said, “There’s one

	to do. Go and <u>sell everything you own!</u> Give them only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riches in heaven. Then come and be my follower.”	thing you still need to do. Go <u>sell everything you own.</u> Give the money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riches in heaven. Then come with me.”
KJV	Now when Jesus heard these things, he said unto him, Yet lackest thou one thing: <u>sell all that thou hast, and distribute unto the poor,</u> and thou shalt have treasure in heaven: and come, follow me.	Then Jesus beholding him loved him, and said unto him, One thing thou lackest: go thy way, <u>sell whatsoever thou hast, and give to the poor,</u> and thou shalt have treasure in heaven: and come, take up the cross, and follow me.

위에서 제시된 영어 번역들을 살펴보면, NIV와 CEV는 πάντα도 διάδος도 살리지 못한 번역을 하고 있는 반면, ASV, NRS 그리고 KJV는 나름대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보여준 원문상의 차이를 잘 살리고 있는 듯하다. 여러 번역들이 누가복음의 διάδος와 마가복음의 δός를 차별화하여 번역하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는 좋은 시도들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런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저자가 의도했던 의미의 심각한 왜곡이나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 듯하다. 그러나 πάντα의 경우는 신학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번역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6.3. 한글 번역들

구분	누가복음 18:22	마가복음 10:21
『개역개정』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u>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πάντα ὅσα ἔχεις πώλησον)</u>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u>διάδος</u>)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u>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ὅσα ἔχεις)</u>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u>δός</u>)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표준』, 『새번역신약』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u>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u>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u>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u>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공동번역』, 『공동개정』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너에게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u>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u>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시고 대견해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u>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u>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 오너라.”

위에서 제시된 한글 번역본들의 경우, 외국어 번역본들에서 보이는 문제 외에도 한 가지 문제가 더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미 이 논문의 서두에서 다룬 것처럼, ἔχεις가 두 가지 방식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어떤 역본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번역한 반면, 다른 역본은 “네게 있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다. 문자적으로는 전자가 더 적절한 번역이지만, 의미상으로는 후자도 별 문제가 없음을 이미 논한 바와 같다. διάδος와 δός의 차이에 대해서는, 『공동번역』과 『공동개정』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번역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위에서 검토한 나머지 번역들은 διάδος를 ‘나누어 주다’로 번역하고, δός를 ‘주다’로 번역하여 나름대로 어감의 차이를 살려주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한글 번역본들도 마가복음의 병행구절에 누가가 덧붙인 πάντα의 중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6.4. 필자의 제안

이상에서 논한 세 가지 점에 주의하면서, 필자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기를 제안한다.

네가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필자가 제안한 번역을 취하게 될 경우, ἔχεις, πάντα, διάδος 등 세 단어의 문자적 의미와 뉘앙스를 제대로 살리면서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를 확연히 구분해 주는 장점이 있다. 이에 더하여 단순한 읽기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겠지만, 누가복음의 독특한 신학적 강조점을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πάντα를 문자적으로 번역에 반영함으로써, 실제로 누가가 의도했던 신학적 의미를 제대로 전하는 장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문자적 번역이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살리는 ‘의미 대 의미’ 번역의 정신도 더 잘 살려주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7. 결론

누가복음 18:22에 나오는 구절 중 πάντα ὅσα ἔχεις πώλησον καὶ διάδος πτωχοῖς의 번역과 관련하여, 단순히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로 번역하고 있는 한글 번역자의 선택이 최선의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중요 헬라어 사전의 설명과 용례를 통해 볼 때, 관계사 ὅσα는 πάντα의 도움 없이도 단독으로 ‘모든/다’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의미 대 의미’ 번역 원칙에 입각해 보았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의 저자가 굳이 πάντα를 덧붙였을 때는 특별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지 질문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만약 πάντα가 저자의 중요한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단어라면, 번역에서 누락시켜서는 곤란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런 취지에서, 필자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πάντα의 추가를 통해서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편집 비평적인 접근, 비교 연구 방법론적 접근 등을 통해, 다른 공관복음서와의 대조 및 누가복음만이 홀로 보도하고 있는 특수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소유물의 올바른 사용과 나눔’에 대해 매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기 위해 누가복음 18:22에서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0:21에는 없었던 πάντα를 덧붙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누가의 중요한 신학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단어인 πάντα를 번역에서 문자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은 ‘의미 대 의미’ 번역 원칙의 차원에서 허용가능한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자가 의도했던 바를 침묵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살펴보았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우리가 문제시했던 구절의 번역을 “네가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번역에 ‘모두’라는 단어를 하나 더 추가함으로써, 원래 누가복음의 저자가 의도했던 신학적 강조점을 제대로 살림과 동시에 마가복음과의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논의의 초점을 흐리지 않기 위해 각주로 처리했지만, 같은 맥락에서 누가복음 6:30의 경우에도,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5:42와 달리 παντί를 첨가하고 있는 누가복음 저자의 신학적 의도를 살려서, 기존의 번역에 ‘모든’을 추가하여 “네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며”로 고쳐 번역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특별히 공관복음의 번역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문자 대 문자’ 원칙을 따르는 것이 좋음을 알 수 있다. 번역자가 모든 구절들을 편집 비평적으로, 혹은 비교연구 방법론적 관점으로 검토한 후에 번역하는 일은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철저히 문자적 번역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누가복음 18:22의 경우와 같이 부지중에 중요한 신학적 의도를 침묵시키는 오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Keywords)

번역 원칙, 편집비평, 비교 연구 방법, 재물의 사용, 누가복음.

principle of translation, redaction criticism, comparative method, right use of possessions, the Gospel of Luke.

(투고 일자: 2012년 7월 16일, 심사 일자: 2012년 8월 17일, 게재 확정 일자: 2012년 9월 27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득중, 『누가의 신학』, 서울: 컨콜디아사, 1991.
- 김선중, “타르굼 호세아 1장의 번역 기법”, 『성경원문연구』 26 (2010), 53-70.
- 박수암, 『사도행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이두희, “<서평> A History of Bible Translation”, 『성경원문연구』 26 (2010), 155-174.
- 이두희, “누가-행전에 나타난 나눔의 윤리”, 『신약논단』 18:3 (2011), 717-751.
- Allen, O. Wesley, *The Death of Herod: The Narrative and Theological Function of Retribution in Luke-Acts*, Atlanta: Scholars Press, 1997.
- Cadbury, Henry Joel, *The Making of Luke-Acts*, London: S.P.C.K, 1958.
- Craddock, Fred B., *Luke*,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 Danker, F. W., et al.,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Ehrman, Bart D., *The New Testament: A Historical Introduction to the Early Christian Writings* (3rd E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Gaventa, Beverly Robert, *The Acts of the Apostles*, Abingdon New Testament Commentarie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3.
- Gillmann, John, *Possessions and the Life of Faith: A Reading of Luke-Acts*,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1.
- Johnson, Luke Timothy, *The Literary Function of Possessions in Luke-Acts*, Missoula: th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1977.
- Johnson, Luke Timothy, *The Gospel of Luke*, Sacra Pagina Series 3,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91.
- Lidell, H. G., et al., *A Greek-English Lexicon*, Oxford; New York: At the Clarendon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O’Toole, Robert F., *The Unity of Luke’s Theology: An Analysis of Luke-Acts*, Good News Studies, Wilmington: M. Glazier, 1984.
- O’Toole, Robert F., “You did not lie to Us (Human Beings) but to God (Acts 5:4c)”, *Biblica* (1995), 182-209.
- Parsons, Mikeal Carl and Richard I. Pervo, *Rethinking the Unity of Luke and Act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 Powell, Mark Allan, 『복음서 개론』, 허주 역, 서울: 크리스찬 출판사, 2003.
- Spencer, F. Scott, *Acts*, Sheffield, Englan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 Verhey, Allen, 『신약성경윤리』, 김경진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7.

<Abstract>

A Suggestion for Translation of πάντα ὅσα ἔχεις πώλησον in Luke 18:22

Dr. Doo-Hee Lee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article attempts to suggest a revised translation of Luke 18:22. In case of Luke 18:22, Korean versions seem to choose the principle of ‘sense for sense’ in translation. Korean versions are simply translating the phrase πάντα ὅσα ἔχεις πώλησον as “sell everything you have (or own)”, thus leaving πάντα untranslated. There seems to be no big problem in communicating the basic meaning of the phrase in question. According to major Greek-English Lexicons edited by Liddell-Scott and Danker-Bauer, the relative pronoun ὅσα can mean ‘everything’ without the aid of πάντα. Examples from Luke-Acts cited by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show that the author of Luke-Acts clearly knew the usages of ὅσα.

In this case, questions arise why Luke added πάντα which might be just redundant. Is it just Luke’s literary style? But redactional comparison of the Gospel of Luke to its source material, the Gospel of Mark, leads us to assume that Luke 18:22 intentionally inserted πάντα to the Markan parallel text 10:21. A close reading of the Gospel of Luke in comparison to the Gospel of Mark and the Gospel of Matthew reveals that Luke tends to emphasize and intensify the importance of the right use of possessions. To do this, Luke sometimes radicalizes the extent of giving up one’s possessions as an expression of his/her resolution to follow Jesus. (cf. Luke 5:11; 6:30). In addition, Luke’s special materials, which Luke alone reports independently of other synoptic Gospels, also supports our assumption that Luke thinks very highly of right attitude/right handling toward/of possessions. However, modern translations do not reflect this subtle difference of Luke’s theology, failing to recognize Luke’s intention to insert πάντα/ πάντι in Luke 5:11 and 6:30.

Thus, if πάντα in Luke 18:22 is an indication of Luke’s special theological interests, the omission of πάντα in translation would be problematic. It would

result in eclipsing Luke's true intention, by making the same translation from the two distinctively different texts, Mark 10:21 and Luke 18:22. For this reason, I suggest to translate the phrase πάντα ὅσα ἔχεις πώλησον in Luke 18:22 as "sell all your possessions, whatsoever you have." In this light, I also suggest that we should follow 'word for word' principle in translating Synoptic Gospels to avoid inadvertently eclipsing distinctive theological emphases of each Gospel writer.